

##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ttachment Style and Marital Adjustment\*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숙\*\*

광주대학교 문리과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우희정

목포과학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노명희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최정미\*\*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Professor : Sook Lee\*\*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Hee-Jung Woo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okpo Junior College  
Full-time Instructor : Myoung-Hee Roh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Lecturer : Jung-Mi Choi\*\*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1) to explore the adult attachment factors, 2)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attachment styles and combined attachment patterns for 362 wives and husbands, 3) and to know the effects of the relation to marital adjustment. The inventories were KAAQ(Korean 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 KMAQ(Korean Marital Adjustment Questionnaire), and the socio-demographic questionnaires. The data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ies, percentiles, Cronbach'  $\alpha$ , Factor Analysis, and F-test.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방대 육성과제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연구원임.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3 factors were found in adult attachment.
2. 3 styles of adult attachment(secure, anxious/ambivalent, avoidant) were found. Secure style was most frequent. Also for 9 combined attachment patterns, secure pattern was found the most frequent one.
3. Marital adjustment was highest with secure attachment style, anxious/ambivalent was next, and avoidant was the lowest. About combined attachment patterns, a pair of secure style showed the highest marital adjustment, and a pair of avoidant was the lowest.

## I. 서론

애착이란 어떤 특정인(애착대상)과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이다(Ainsworth, 1982). Bowlby(1969)는 유아기의 안정감은 유아가 애착대상에게 언제나 접근해 갈 수 있으며 또 애착대상이 자신의 요구에 항상 반응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이 내재되어 있는 유대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착관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유아기를 주로 대상으로 다루었지만 최근에는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애착관계의 발달과 안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Bowlby, 1969; Wynne, 1984).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지속된다는 관점은 주로 Bowlby의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설명되는데, Ainsworth가 애착유형 분류에서 언급했던 어머니의 근접 가능성과 반응성에 대한 유아의 기대가 내적 실행모델에 통합되어 있다고 한다(Hazan과 Shaver, 1987). 이렇듯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진 내적 실행모델은 인지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정교화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상황에서의 판단과 행동을 인도해 나간다고 보겠다.

애착의 평가 및 분류는 유아기(주로 2-3세까지)를 대상으로한 Ainsworth의 방법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유아기 이후인 학령전 아동기(Main 등, 1985), 청년기(Kobak과 Sceery, 1988), 성인기(Hazan과 Shaver, 1987)에도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성장하면서 애착대상에 대한 기대는 지속되지만 대상에게 근접하려는 행동은 감소하고 상징적 의사소통(전화, 편지)이 증가하는 등 애착행동 자체에서 변화를 보인

다고 반박하는 입장(Bowlby, 1969)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인기 애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에서 의미있다고 밝혀진 애착요인이 성인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기초로 애착 유형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애착요인을 근거로 하여 분류되는 애착유형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사도구를 제작,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그다지 시도되지 않았고, 청년기나 성인기의 경우 자율성 등을 전제로 한 외국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겠다.

한편,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연인이나 부부 같은 사랑관계(love relation)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아동기 애착경험이 성인기에 까지 연장되는가 하는 애착안정성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부모이외의 친근한 대상에 대한 성인기의 애착이 사회적 적응 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라는 애착이론의 전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적응은 결혼만족도, 결혼행복도, 성공도, 결혼의 질 등 개념적으로 유사한 용어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행해져 왔는데,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긴밀하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성인기 애착과의 관계를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한 주제라고 본다. 그러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성인기 애착과 결혼적응에 관해 실시된 실증적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외국의 경우 청년 후기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애착과 사랑관계나 일반적인 관계만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Collins와 Read, 1990; Fehr와 Russell, 1991; Hazan과 Shaver, 1987; Hendrick과 Hendrick, 1986, 1988, 1989; Sternberg와 Grajek, 1984), 국내의 경우 부모와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유은희, 박성연, 1989; 유은희, 1991; 박희성, 1994; 조병은 외 8인, 1995; 강진경, 1996)가 다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인기 애착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성인기의 애착요인 및 부부의 애착유형을 밝히고, 부·부의 애착유형 및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라 결혼적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부의 애착 유형 및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라 결혼 적응이 어떻게 차이날 것인가를 밝힘으로써 부부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결혼전의 배우자 선택과정까지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제적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결혼생활의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높이고, 부부교육 및 결혼상담프로그램의 중요한 자료로서 결혼적응을 높여줄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성인기의 애착요인은 어떠한가?
- 둘째, 부·부의 애착유형과 애착유형 결합형태는 어떠한가?
- 셋째, 부·부의 애착유형 및 부부의 애착유형 결합 형태에 따른 결혼적응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성인기 애착

애착은 친밀한 관계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관점이 되고 있다. Bowlby(1969, 1973)는 유아기 생

후 2년동안 감정과 행동에 대한 통합된 애착체계를 발달시키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와의 경험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러한 초기 애착관계가 가족이외의 관계에 대한 원형(prototype)을 형성한다고 가정하였고, 초기 애착관계의 특성과 질은 아동의 육구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인 측면과 반응성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고 하였다.

성인기 애착이란 신체적, 정신적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한 사람이나 몇몇의 특정개인과 접촉 또는 근접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개인의 안정된 경향으로서,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인지적, 애정적, 동기적 도식인 애착의 내부실행모델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다(Berman & Sperling, 1994). 성인에 있어서 애착은 영유아기와 달리 돌봄을 받는 측면과 돌보아주는 측면을 포함한 많은 호혜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청년기 및 성인기에서는 근접 행동 그 자체가 곧 애착의 감정이나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녀가 안정감을 얻는데 부모가 꼭 실제로 같이 있어야 한다기 보다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혀지고 있다. 즉, 안정된 애착유형의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위해 집을 떠난 후에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모를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있었으며(Kenny, 1987; Kobak, 1988), 그들이 부모에 대해 갖는 이러한 애착감정은 복지감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Greenberg 등, 1983). 같은 맥락에서 세대간의 유대관계를 연구하는 가족 사회학자들은 청년기나 성인기의 애착행동은 아동기의 애착과는 달리 애착감정, 부모의 의존성, 주거인접정도, 효도의무감 등의 함수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박성연, 1988; Cicirelli, 1983).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어떤 애착관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두가지 접근을 취하고 있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로, Main은 Adult Attachment Interview(AAI)(George, Kaplan과 Main, 1987; Main과 Goldwyn, 1988)를 개발하여 아동기 애착관계에 대한 성인의 표상을 탐색하였는데 면접을 통하여 어머니들은 안정(secure), 회피(dismissing), 집착(preoccupied)의 3

가지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었다. Kobak과 Sceery (1988)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을 알아보았는데, 안정유형(secure)은 자신에 대해 distress가 없는 경향이고 타인을 지지적으로 보았으며, 회피유형(dismissing)은 자신을 distress가 없다고 보고 타인을 비지지적으로 보았으며, 집착형(preoccupied)은 자신을 distress가 있고 타인을 지지적으로 보았다.

둘째, 사랑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초기 애착관계가 성인의 사랑관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낭만적 사랑 자체가 자녀-양육자 애착과 매우 유사한 하나의 애착과정이라고 제안하면서, 준구조화된 면접으로 추론하기보다는 자기보고에 의해 평가하였다. Hazan과 Shaver는 Ainsworth 등(1978)에 의해 발달된 애착유형을 참고로 세 가지 애착유형 - 안정, 회피, 불안/양가- 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애착유형을 설명하는 세 가지 진술문 중에서 그들의 감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Simpson(1990)도 Hazan과 Shaver(1987)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13문항으로 된 성인애착척도를 만들었다. 반면에,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1987)의 3가지 애착유형이 단일진술문으로 되어 있어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느낌을 여러 차원에서 반영해 주지 못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진술문만을 채택해야 하고, 개인의 애착정도를 평가하지 못하며, 세가지 애착 유형을 서로 배타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서 그 세 유형이 성인기 애착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없으며, 세 유형간의 관련성을 알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Collins와 Read는 의존(depend), 불안(anxiety), 친밀(close)의 3요인(18문항)으로 된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개발하였다. 의존요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요청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것이며, 불안 요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친밀요인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편하게 느끼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Bowlby(1973)의 내

적 실행모델에 근거하여 자아상(긍정적 : 부정적)의 두가지 수준과 타인상의 두가지 수준(긍정적 : 부정적)의 조합을 사용하여 4가지 범주로 애착유형을 나누었는데, 자기보고법과 면접법 모두를 사용하였다. 자존감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온정적인 사람을 안정(secure), 자존감이 높으면서 대인관계에서 적대적이고 차가운 사람을 회피(dismissing), 자존감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표현적인 사람을 집착(preoccupied), 자존감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주장성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을 불안(fearful)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2. 성인기 애착과 결혼적응

애착관계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되고(Erikson, Sroufe와 Egeland, 1985; Main, Kaplan과 Cassidy, 1985; Sroufe, 1983; Waters, Wippam과 Sroufe, 1979), 개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많은 연구들(Main 등 1985; Hazan과 Shaver, 1987; Kobak과 Sceery, 1988; Bartholomew, 1990)에서 지지되고 있다. 즉, 애착기능이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하며, 부모-자녀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내적 표상은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안내역할을 함으로써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Cicirelli, 1983; Ainsworth, 1982).

Bartholomew(1990)는 애착의 실행모델이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아동기의 애착유형은 결혼 및 가족발달과 관련되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유의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배우자의 회피적 행동유형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결혼 불만족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Kobak과 Hazan(1991)은 애착안정성과 부부의 결혼만족도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안정애착 남편과 부인은 불안정 남편과 부인보다 더 건전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Senchak와 Leonard(1992)는 애착안정성이 유사할 때 부부가 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결혼적응 변인과의 관련성 있다고 하였다. 즉 부부가 모두 안정

애착인 경우 부부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 불안정하게 애착된 경우보다 나은 결혼적응을 보였다. 현재 연애중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서도 남녀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유형이 그들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만족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eeney와 Noller(1990)는 자아와 인간관계에 대한 일반적 과정을 다루는 실행모델이 애착유형에 따라 다름을 발견하였는데 즉, 두 불안정유형집단과 안정유형집단을 비교했을 때 안정유형집단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 더 신뢰하고 자신감이 높았으며, 애정관계에서 더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Barthomew와 Horowitz(1991) 역시 안정유형집단이 더 표현적이고 덜 냉담하고 내향적이었으며 더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유은희, 박성연(1989)은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발달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부모와의 애착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애착이 정서적 안정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애착의 기능은 전생애적으로 작용한다는 Bowlby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Hazan과 Shaver(1987)는 애착과정을 개념화된 로맨틱한 사랑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세가지 유형중 안정유형을 가장 많이 나타낸 것으로(56%) 보고하였는데 이들의 특성은 자신에 대해 존중받고, 타인의 관심이나 지지 그리고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중요한 타인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그를 의지, 신뢰할 수 있으며 호의적이라 여기는 내적 실행모델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자신에 대해 냉담하고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타인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고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해하는 특성을 지닌 회피유형이 25%정도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에게 몰입하는 특징이 있고 쉽게 사랑에 빠지거나 진실된 사랑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위의 두 유형보다 더 자기의심적

요인이 많은 불안/양가 유형은 19%였다고 보고하였다. 박은경(199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유형이 45.5%, 회피애착유형이 27.5%, 불안/양가애착유형이 27%로 안정애착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eeney와 Noller(1990)는 성인의 사랑관계에 대한 한 예측원으로서의 애착유형을 조사한 결과, 안정애착유형이 가족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회피적 애착유형은 아동기때 어머니로부터 격리된 경험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였다. 불안/양가 애착유형은 회피적 유형보다 아버지가 덜 지지적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관계내에서 독립심이 결여되고 화합하고자하는 바램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하면서 애착이론이 성인의 사랑관계에 유용한 견해를 제공해준다고 제안했다. Kobak과 Soeery(1988)의 연구에서는 안정적(secure) 애착유형은 자신에 대해 distress가 없는 경향이고 타인을 지지적으로 보았으며, 회피적(dismissing)애착유형은 자신을 distress가 없다고 보고 타인을 비지지적으로 보았으며, 집착(preoccupied)애착유형은 자신을 distress가 있고 타인을 지지적으로 보는 특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Collins와 Read(1990)는 데이팅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애착 유형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파트너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상대방 파트너에 대해 친밀하고자 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정도의 신념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파트너의 성격특성과 인구통계학적 유사성이 있다고 밝힌 Buss(1984)와 Buss와 Barnes(1986)의 연구결과는 애착유형에 있어서도 파트너간의 유사성을 예측하게 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태도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매력과 관련되기 때문에(Burne, 1971), 사람들은 관계내에서 유사한 행동을 하거나 사랑에 대한 비슷한 신념과 기대 등을 지닌 타인을 좋아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부부 400쌍이었는데, 이 중에서 불성실한 경우와 무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362쌍의 자료만이 실제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부부 모두 30대(45.9%, 48.6%), 40대(27.9%, 29.4%), 20대(5.8%, 14.1%), 50대(20.4%,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연수는 6-15년이 가장 많았고(41.2%), 5년 이하(23.8%), 16-25년(22.4%), 26년 이상(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53.9%로 가장 많았고, 고졸(22.7%), 대학원 이상(16%) 순이었다. 부인의 교육수준은 고졸(46.3%), 대졸(31.3%), 중졸(8.3%) 순이었다. 소득은 101-200만원이 49.7%로 가장 많았고, 201-300만원(29.5%), 301만원 이상(12.6%), 100만원 이하(8.1%)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성인기 애착과 결혼 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 1) 성인기 애착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애착을 조사하기 위하여 Collins와 Read(1990)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의존(depend), 불안(anxiety), 친밀(close)의 3요인을 설정하였다. 각 요인에 맞는 문항선정은 Hazan과 Shaver(1987), Bartholomew와 Horowitz(1991) 등의 조사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6개 문항씩을 선정하였고 총 18 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기 애착 질문지의 요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의존(depend):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요청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② 불안(anxiety):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과 밀착된 관계를 지나치게 원한다. ③ 친밀(close):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편하게 느끼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구성된 문항들이 애착요인을 평가하기에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일부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고 대학생 20명에게 내용타당도를 다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후에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의 이해나 응답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의존이 .70, 불안이 .91, 친밀이 .79로 나타났다.

##### 2) 결혼적응 질문지

부부의 결혼적응 질문지는 Spanier(1976)의 DAS(The Spanier Dyadic Adjustment Scale)를 참고로 하여 일치, 응집, 만족의 3개 요인(30문항)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이 문항들이 부부의 결혼적응을 측정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내용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자 10명에게 의뢰하여 문항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질문지를 사용하여 부부 7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애매하다고 평가된 문항들을 수정하였고, 수정된 질문지로 50쌍의 부부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신뢰도계수(Cronbach의  $\alpha$ )가 .96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3차에 걸친 예비조사(1998. 3. 10 - 4. 10)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1998. 5. 4 - 5. 22)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성인기 애착 질문지와 결혼적응 질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0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실시되었다. 2차 예비조사는 1차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질문지를 가지고 광주광역시 지역의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3차 예비조사는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부부 400쌍을 대상으로 4명의 연구자가 각각 실시하였으며, 질문지에 대한 응답방법은 부부가 따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Cronbach의  $\alpha$ , 요인분석,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부·부의 애착요인

성인기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불안, 의존, 친밀의 3요인에 기초해 각 6문항씩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한 후에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념적으로 분류했던 것과 일치하는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각각의 요인들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진 문항들은 척도구성시의 가정과 일치하였다(<표 1>참조). 이 과정에서 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2. 부·부의 애착유형 및 애착유형 결합형태

부·부의 애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애착요인(의존, 불안, 친밀)점수를 이용하여 비계층 군

<표 1> 성인기 애착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문항번호	회전시킨 후		
	요인1(불안)	요인2(의존)	요인3(친밀)
11	.88		
13	.88		
9	.85		
8	.81		
16	.72		
3		.70	
1		.66	
14		.64	
18		.64	
12		.61	
2		.39	
15			.89
17			.88
7			.53
6			.32
10			.30
고 유 치	6.12	2.68	1.28
전체변량	6.03	2.70	2.36

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참조). 그 결과 3개의 군집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로 군집의 성격을 알아본 결과 ① 불안/양가유형 ② 안정유형 ③ 회피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1은 불안, 의존 점수가 높고 친밀점수가 낮은 경우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는 반면에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는 맺지 못하는 유형으로서 불안/양가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Hazan과 Shaver(1987), Main, Kaplan과 Cassidy(1985),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시한 불안/양가유형이나 집착(preoccupied)유형에 해당된다

<표 2> 애착요인 군집별 각 항목의 평균과 차이검증

애착요인	전체평균	군집1(n=182)		군집2(n=395)		군집3(n=147)		F값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의존	17.92	21.76	A	16.72	B	16.40	B	144.10***
불안	14.11	19.49	A	9.56	B	19.70	A	961.98***
친밀	15.76	14.48	B	18.45	A	10.12	C	466.49***

\*\*\*p < .001

고 보겠다. 군집 2는 친밀점수가 높고 불안, 의존점수가 낮은 유형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독립적인 성향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은 높게 형성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안정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불안점수가 높은 반면에 의존점수가 낮고 친밀점수가 특히 낮은 경우로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유형으로서 회피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회피유형은 Hazan과 Shaver(1987), Main, Kaplan과 Cassidy(1985),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회피유형이나 dismissing, fearful유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안정유형은 전체의 54.6%, 불안/양가유형은 25.1%, 회피유형은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Hazan과 Shaver(1987)가 보고한 안정유형(56%), 회피유형(25%), 불안/양가유형(19%)의 분포나 박은경(1993)의 안정유형(45.5%), 회피유형(27.5%), 불안/양가유형(27%)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편, 부·부의 애착 유형을 결합하여 본 결과 모두 9개의 결합 유형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이 중에서 부·부가 모두 안정유형인 경우가(47.2%)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부·부가 모두 불안/양가유형인 경우(11.6%), 남편이 불안/양가유형이며 부인이 회피유형인 경우(11.1%), 부·부가 모두 회피유형(9.7%)인 경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ollins

와 Read(1990)는 비슷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파트너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부·부간 일치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68.5%에 달하는 것은 태도에서의 유사성이 매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여과 이론(Udry, 1974)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 3. 부·부의 애착유형 및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른 결혼적응

부·부의 애착유형별로 결혼적응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의 애착유형별 결혼적응점수를 본 결과(〈표 4〉참조), 부·부 모두 안정유형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안/양가형, 회피유형의 순이었다. 즉, 부·부 모두 안정유형이 결혼적응점수에 있어서 불안/양가유형과 회피유형에 비해 30점 가까이 결혼적응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불안/양가유형과 회피유형은 결혼적응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 모두 회피유형일 때 결혼적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owlby(1973)가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신뢰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가장 적응을 잘한다고 한

〈표 3〉 애착유형결합형태별 남편과 부인의 결혼적응 평균과 차이검증

결혼적응 결합(남편+부인)	전 체 N(%)	남 편		부 인	
		평균	Duncan	평균	Duncan
1. 불안/양가+불안/양가	42(11.6)	68.07	C	71.88	E
2. 불안/양가+안정	15( 4.1)	84.67	B	83.40	CD
3. 불안/양가+회피	40(11.1)	73.08	C	72.90	DE
4. 안정+불안/양가	22( 6.1)	101.18	A	98.46	AB
5. 안정+안정	171(47.2)	105.04	A	104.78	A
6. 안정+회피	7( 1.9)	89.43	B	89.14	BC
7. 회피+불안/양가	21( 5.8)	72.10	C	73.29	DE
8. 회피+안정	9( 2.5)	86.44	B	89.22	BC
9. 회피+회피	35( 9.7)	66.60	C	69.09	E
F값	362(100)	60.39***		43.46***	

\*\*\* p < .001



〈표 4〉 애착유형별 남편과 부인의 결혼적응 평균과 차이검증

결혼적응	전체 평균	불안/양가(n=182)			안정(n=395)			회피(n=147)			F값
		N(%)	평균	Duncan	N(%)	평균	Duncan	N(%)	평균	Duncan	
남편	89.75	97(26.8)	75.01	B	200(55.2)	103.35	A	65(18.0)	71.45	C	319.71***
부인	90.20	85(23.5)	76.43	B	195(53.9)	102.99	A	82(22.7)	72.91	C	252.01***

\*\*\* p &lt; .001

주장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대학생활의 적응도가 높다고 보고한 Kobak과 Scery(1988)와 Bell(1985)의 연구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Kobak과 Hazan(1991)은 안정애착인 남편과 부인이 불안정애착인 남편과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김덕일(1996)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유형이 불안, 회피유형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른 결혼 적응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3 참조), 대체로 부부가 모두 안정유형일 때가 가장 높았고, 남편이 안정유형이고 부인이 불안/양가일 때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에 부부가 서로 회피유형이거나 불안/양가유형일 때가 가장 결혼 적응 점수가 낮았으며, 부부중 한 사람이 불안/양가유형이고 다른 한 사람이 회피유형일 때가 그 다음으로 낮았다. 또한, 부부중 한 사람이라도 안정유형일 때는 결혼적응이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Senchak과 Leonard(1992)는 부부가 모두 안정유형일 때 부부중 어느 한 쪽이나 양쪽 모두 불안정하게 애착된 경우보다 나은 결혼적응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Bartholomew(1990)에 따르면, 배우자의 회피적 행동 유형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결혼불만족의 주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의 애착요인은 불안, 친밀, 의존의 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부의 애착 유형은 안정유형(54.6%), 불안/양가유형(25.1%), 회피유형(20.3%)의 3유형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는 모두 9개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부·부가 모두 안정유형인 경우(47.2%)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부·부가 모두 불안/양가유형인 경우(11.6%), 남편이 불안/양가유형이며 부인이 회피유형인 경우(11.1%), 부·부가 모두 회피유형인 경우(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의 애착유형별 결혼적응을 분석한 결과 부·부가 모두 안정유형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안/양가유형, 회피유형의 순이었다. 부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에 따른 결혼적응은 부부가 모두 안정유형일 때가 가장 높았고, 남편이 안정유형이고 부인이 불안/양가유형일 때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에 부부가 서로 회피유형일 때가 가장 결혼적응 점수가 낮았으며, 부부가 모두 불안/양가일 때가 그 다음으로 낮았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불안/양가유형이고 다른 한 사람이 회피유형일 때가 그 다음으로 낮았다. 또한, 부부중 한 사람이라도 안정유형일 때는 결혼 적응이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부의 애착유형과 애착결합유형은 결혼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안정유형일 때 불안/양가 애착이나 회피애착같은 불안정애착유형보다 결혼적응을 더 잘한다.

셋째, 부부의 애착유형 결합형태중에서 부부가 함께 안정 애착유형일 때 가장 결혼적응이 높고, 부부

가 모두 불안정 애착유형일 때 가장 낮다.

넷째, 부부 중 하나라도 안정 애착유형일 때, 두 사람 모두 불안정 애착유형인 경우보다 결혼적응이 잘 된다.

따라서, 결혼적응기에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애착유형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더 잘맞는 배우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결혼상담 및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며, 불안정 애착유형인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부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부부의 애착유형 및 결혼적응이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겠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부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결혼기간이나 결혼생활주기, 소득, 교육수준 등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강진경(1996).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덕일(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간의 사랑유형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성연(1988).母的 결혼관계와 母-기혼자간의 애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4.
- 4) 박은경(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유은희·박성연(1989). 母子간의 애착 및 母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夫婦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6)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조병은 외 8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8) Adams, B. N.(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3rd). Chicago: Tand Mc. Nally college publishing co.
- 9) Ainsworth, M. D. S. ,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Elbaum.
- 10) Bartholomew, K.(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11)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12) Bean, F. D., Curtis, R. L., & Mareum, J. P. (1977). Familism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xican Americans: the effects of family size, wife'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conjug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9, 759-767.
- 13) Belsky, J., & Rovine, M.(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66.
- 14) Blood, R., & Wolfe, D.(1960). *Husbands and wives*, Crowell Co., 60-89.
- 15)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 16)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 17)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 18) Bowman, H. A., & Spanier, G. B.(1978). *Mordern*

- marriage, McGraw-Hill Book Company, NY.
- 19)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35.
  - 20) Cicirelli, V. G.(1983). Adult Childrend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815-825.
  - 21)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22) Egeland, B., & Farber, E.(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23) Epstein, S.(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essachusetts.
  - 24) Feeney, J. 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25) Figley, C. R.(1973). Child density and the marital relationship. *JMF* 35(2), 272-282.
  - 26)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1984). The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27)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28) Hendrick, C., & Hendrick, S. S.(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84-794.
  - 29) Jeries, N.(1979). Marital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4), 226-233.
  - 30) Kenny, M. E.(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 17-29.
  - 31) Kirkpatrick, L. A., & Davis, K. E.(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32) Kirkpatrick, L. A., & Hazan, C.(1994).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 123-142.
  - 33) Kobak, R. 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34) Levy, M. B., & Davis, K. E.(1988). Love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35)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20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6) Mikulincer, M., & Nachson, O.(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21-331.
  - 37) Pipe, S. and R. J. Harmon(1987). Attachment as Regulation:A Commentary, *Child Development*, 58, 648-652.
  - 38) Roach, A. J., Frazier, L. F.,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asearch, *JMF* 43 (3), 537-546.
  - 39)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40) Schachere, K.(1989). Maternal employment during infancy: Family processes that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41) Senchak, M., & Leonard, K. E.(1992). Attachment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 51-64.
- 42) Sharpsteen, D. J., & Kirkpatrick, L. A.(1997). Romantic jealousy and adult romantic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627-640.
- 43) Simpson, J. A.(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971-980.
- 44)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99-914.
- 45) Skolnick, A.(1986). Early attach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course.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7, 173-206.
- 46) Spanier, G. 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MF* 38, 15-28.
- 47) Sroufe, L. A., Egeland, B., & Kreutzer, T.(1990). The fate of early experience following developmental change: Longitudinal approaches to individual adaptation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63-1373.
- 48) Thoraton, A.(1977). Childres and marital stability. *JMF* 39(3), 531-540.
- 49) Tidwell, M. O., Reis, H. T., & Shaver, P. R. (1996). Attachment, attractiveness, and social interaction: A diary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29-745.
- 50) Wynne, L.(1984). The Epigenesis of Relational Systems: A Model for Understanding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23, No.3.